

# 발해 독창적 불교문화 꽃피워

## 왕실·귀족 유해 봉안 '무덤탑' 조성... 최근 절터 43곳 확인

### 연변대 방학불교수 논문서 밝혀

중국 발해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발해불교문화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연변대 발해사연구소장인 방학불교수가 최근 (다보) 16호에 발표한 '발해불교문화사 연구'란 논문은 그간 자료부족으로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국내 발해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학수는 논문에서 "발해는 당나라의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체의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나라 불교문화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

게 했다"고 주장한다.

즉 발해가 금·은·보상 등을 당나라에 보내고 학문승리를 당나라에 교환하는 등의 교류를 통해 발해의 우수한 불교문화가 당나라에 전파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방학수는 이같은 발해불교문화의 우수성의 한 예로 독창적인 불교건축을 든다.

중원에서는 경전과 사리 등을 탑실(塔室)에 넣는 반면, 발해에서는 국왕을 비롯한 왕족과 관료귀족의 유해까지 넣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알려진 정효공주무덤탑등 3개의 무덤탑은 왕실귀족 신분의 무덤을 불교의 묘법형식으로 조성하는 등



◇발해진(渤海眞) 흥릉사석탑(興隆寺石塔).

독특한 건축문화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학수는 또 "발해국이 건립된 초기부터 발해국 경내에는 불교를 신앙하는 현상이 있었

다"고 강조한다.

발해국 초기에 이미 불교가 일정한 세력을 형성, 제대 고왕 대조영(大祚英)이 714년에 왕자를 당나라 수도 장안에 파

견해 불법(佛法)을 배우게 해 줄 것을 청하고 제3대 문왕 대흥무(大興茂)가 자기의 존호마져 '대흥무(大興茂)감금륜법대왕(大興寶壽孝感金輪聖法大王)'이라 칭한 사실이 그 예다.

방학수는 "발해에 불교가 왕성해지면서 승려들 가운데 일부 상층인물은 당나라와 일본으로 왕래하는 사절단의 중요한 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정치에도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고고학 발굴 조사에 의해 발견된 발해사원 유지로는 상경 용현부내에 10개, 중경 현덕부내에 16개, 동경 용원부내에 8개, 연해주 지역내에 4개 등 모두 43개소가 있다. 또 탑터로는 정효공주무덤탑등 8개의 무덤탑과 발해진 흥릉사석탑(石塔)등 3개의 탑이 있다.

김재경 기자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刺繡袈裟·18세기).

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관장은 "고대 자수는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매우 성행했으리라 짐작된다"고 말했다.

고려시대에 현존하는 작품은 대각국사 의천의 가사와 용문탁의(龍文卓衣)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가사와 불경의 표장(表裝), 수불, 수번(繡幡), 연(簾)의 장엄물 등이 있다.

이날 한국자수문화협회 회장 남상민회장과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장도 한국자수에 있어서의 불교자수의 선구적인 영향에 의견을 같이했다.

## 구산선문·조계종기원등 밝혀

### '보조사상' 9집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의 학술지(보조사상) 제9집이 나왔다. 지난 10월 개최된 보조사상학술세미나 발표논문을 묶은 것이다.

이번 논집은 동국대교수인 현각·성본스님과 김영태교수, 정문연 허흥식교수의 △남해부영의 무실토론 △신라 선의 사상적 특성 △구산선문의 성립과 그 성격에 대해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 등을 실었고, 또 연구회원 논문으로 "간화결의론 역주: 화엄과 간화선의 변증법(김복성 청주대 강사)" "삼국유사 미륵산화 역주(하정룡 고려대 박사과정)"을 실었다. (02)733-5335

### 세대별 종교관 양태분석 '석림' 29집 발간

동국대석림회(회장 범천·근행)가 펴내는 학술지(석림) 제29집이 나왔다.

이번 논집은 '인간의 종교: 그 서막에서 폐막까지'란 주제의 교수논단에서 동국대 오영근·황옥자교수와 충북대 정호영교수, 중앙대 류종민교수, 인천전문대 윤세원교수의 △불교의 태이관 △유아기에 전개될 불교적 인식관 △청소년기의 종교관 △불교의 역할 △장년기의 불교적 인생관 △불교적 세계관과 노년기등의 논문을 실었다. (02)260-3693

## "한국자수 불교문화가 선도"

### 제1회 학술대회서 임영주씨등 주장

우리나라의 자수(刺繡)는 삼국시대에 중국 육조(六朝) 때 발생한 수불(繡佛)과 수가사(繡袈裟), 수장(繡帳) 등과 같은 불교자수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발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수문화협회(회장 남상민)가 주관한 제1회 한국자수 학술대회의에서 한국전통공예미술관 임영주관장은 '한국자수의 문양요소의 성격'이란 발

## 법주사

### 대웅전

佛身普應十方中  
(불신보연십방중)  
三世如來一切同  
(삼세여래일체동)  
廣大願雲恒不盡  
(광대원운항부진)  
威光遍照十方中  
(위광편조십방중)  
月印千江一體動  
(월인천강일체동)  
四智圓明諸聖士  
(사지원명정승사)  
(사지원명정승사)  
寶鏡法舍利莊嚴  
(보경법舍利莊嚴)  
(보인법회이군생)

부처님은 이 우주 모든 곳에 두루 계시니 3세(과거·현재·미래)의 부처님 다르지 않네 넓고 넓은 원력 다함이 없고 넓고 넓은 깨달음의 세계는 오묘해서 다 말할 수 없네 부처님의 위광이 사방세계에 가득차고 천갈래 강에 비친 달은 천개로 보여도 근본은 하나 4지(여래의 네가지 지혜)에 통달한 많은 성인들 두루 법화에 입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네

해설 법주사 대웅보전의 주련은 부처님의 법력

이 빈구석 없이 이 세상을 덮고 있어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중생구제를 한다는 것을 매우 장엄스럽게 일러주고 있다.

앞의 4귀절과 뒤의 4귀절을 따로 떼어놓고 읽어보면 이 귀절들이 마치 노래의 1절과 2절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 부처님 장엄한 중생구제 묘사

다. 그같은 인상은 '시방'이란 단어의 중복과, '일체'의 통용이 반복에서 강하게 주고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주련이 부처님의 법이 갖는 위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

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부처님과 깨달음의 세계가 앞의 4귀절에서 뼈대를 이루고 있고 부처님의 위광과 성인들이 뒤구절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개별적 것이 아니다. 각각의 개별적 의미는 이미 부처님이란 의미 속에 들어 있고 또 깨달음이란 말 속에 다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다시말해 부처님의 본래 모습은 깨달음 자리에서는 모든



한국 사찰의 주련

것과 두루 통한다는 의미가 각각의 실체들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장엄스런 문학적 감동까지 받게되는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 양아들 삼았는데 돈갖고 도망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못된 인간이 날보고 '어머니'라고 하며 친근하게 굴더니 어느날 돈 조금 모아놓은 것을 몽땅 들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울화가 치밀어 병이 날 지경입니다. (최영조·경남 창원시)

자식 욕심을 부리셨군요. 아무튼 예전 빚을 그냥 갚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라도 편해야지요. 그래야 분한 생각, 미운 생각 없게되고 그래야 그 아들이 진짜 아들 노릇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쪽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쪽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쪽에 성내는 마음, 복수할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도 그대로 나올뿐입니다.

## 가름에 거북이 살려주고 비울지...

연전에 포항지역에 심한 가름이 들었을 때 모든 주민들이 애를 태우던 중에 백년 묵었다는 거북이를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 다. 그때 사람들은 거북이를 살려주었으니

요즘 과학자로 말하면 그야말로 오싹 통을 굴리는 사람들이지요. 심지어는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서 이제는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다달아서는 물질계와 정신계의 구분을 없애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싹통은 도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신속함, 천안함, 천이통을 하고 타임통 속명통을 한다해도 그건 반쪽짜리 불교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서야 이 우주 삼라만상의 물질을 어떻게 깨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늘 도를 깨우치려면 부자가 상봉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와 자가 한데 합쳐서 자유자재로 나고 드는 그 자리, 그것을 마음이라 하셨는데 그것을 알아야만 일체 만물민생의 나고 죽는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물질의 근본이 마음인가 보다라고 추측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싹통을 벗어나 마음대로 그것을 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현대과학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마음을 밝혀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양사원 대흥스님에게 물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지 상 담  
길 을 묻 는  
이 에 게

보발곳 : 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기대했는데 물론 미신이지요?

〈권옥주·포항시 죽도동〉

미신이거나 그런 공치사가 어디 있습니까? 공연회 거북이만 귀찮게 한 것이 그거 살려준 것입니까? 좋은 일 한 것이 아닙니까.

흔히들 방생한답시고 물고기를 잡았다가 풀어놓는데 그건 불구가 제비다리 고쳐주었다는 격이지요. 말쑥히 잘 살고있는 놈을 잡아다가는 엉뚱한 타향에 풀어놓는데 그런 걸 가리켜 불부방생이라 합니다. 이와 방생을 하려거든 후부방생을 해야하겠지요.

## 우주·물질 근본은 마음이라는데...

자연과학 계몽의 대각성입니다. 주인공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의심을 풀

어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물리학에서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보면 양성자·중성자·전자 등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들이 한편은 입자이면서 한편으로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들도 마음을 갖고 있다 고 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정신의학 분야에선 뇌와 마음은 별개 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추론인즉 우주의 근본, 물질의 근본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의 생각을 여쭙니다. (충남대 한 연구생)

지 못하면 반쪽과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앞으로의 과학은 심성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처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이니 마음을 밝혀야 하고서야 온통과학을 할 수 있지요.

과학자들이 원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에서 입자든 파동이든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마음으로 천백억 회해서 다루는 것이나 부처님이 응시하는 것이 다 다를 바 없습니다. 물질세계로 보면 지·수·화·풍 사대가 서로 비바대니까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자연 모습이 생기고, 대폭발이라는 것도 있었고, 생명도 나타나고 별도 형성되고 했지요. 인간도 지구화풍으로 되어 지구화풍을 먹고 지구화풍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에너지로써 일체가 자동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잣대로 사물을 재려고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 과학이라는 말에 걸려서 만물만생이 상통하는 이치를 받아들이려 하질 않습니다. 물질세계는 물질이라는 잣대로만 재야 하고 정신세계는 정신이라는 잣대로만 재야 한다고 보는 한 어찌 지구화풍 사대를 근본으로 한 줄 알 수 있었습니까. 현대과학이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려면 마음을 알고 바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 이 육신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살아온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체든 아니든, 보이는 세계든 안보이는 세계든 두루 알 수 있게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부처님 법 안에 있습니다.

실화 영험담

# 神通

길 잃은 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밭이 되고 병든 자에게 양약이 되고 어리석은 중생에게 지혜의 샘이 되는 혜운스님의 실화 영험담!

사업 실패, 이혼, 실종, 사고, 정신질환 등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혜운스님 / 저

신국판/312쪽/반양장 값 6,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지금 곧 체험해 보십시오!

### 질병 가난 고뇌에 빠진 가정의 등불

이 책을 펴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의 세계가 왜 두려운가를 — 소름 끼칠 귀신들의 작태, 원한 맺힌 영혼들의 해고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밝혀 준다. 이렇듯 한 많은 원혼을 달래어 극락에 보내주고 시달린 가정을 건져주는 혜운 스님의神通력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귀신의 작용! 마침내 부처님의 법력으로 파헤치다.

주소 131-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30-13 전화번호 925-5730~1, 팩스번호 925-5731

## 1996학년도 동학사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동학사 승가대학에서는 199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니과 00명
- 시험과목 : 면접, 초발심자경문, 염불실기, 불교기초교리
- 입학자격 :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생인 경우 2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사진(반명함판 : 3×4) 3매
- 준비물 : 오조가사, 장삼, 필기도구, 승려증
- 시험일시 : 1996년 1월 29일(음 12월 10일) 월요일
- 도착일시 : 1996년 1월 28일(음 12월 9일) 오후 4시까지
- 문의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중무소 (☎ 042-825-2570)

※ 교통편 : 1) 대전본역 앞에서 좌석버스 102번  
2)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좌석버스 102번  
3)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2번, 103번

##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일 연